

전주시 아동청소년 정책 들여다보기

아이들은 즐겁게 부모는 행복하게

야호 아이숲 확대... 작년 6곳 조성 이어 올 4곳 추가
덕진공원에 아동친화 공간 맘껏 숲 · 맘껏 하우스 조성
평생학습센터 등 기관별로 부모교육 프로그램 차별화

전주시는 민선6기 이후 어린이를 위한 보호적 조치에서 한걸음 더 나가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적극적인 아동친화정책을 펼쳐왔다.
이를 위해 '야호'를 아동친화도시 전주의 대표 브랜드로 선정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어린이와 청소년이 즐겁고 부모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야호 프로젝트는 '전주형' 아동, 청소년 정책으로 야호 아이숲, 야호생태놀이터, 행복한 책 놀이터, 야호학교 부모교육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아동청소년 정책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자.

△도시 곳곳에 확충되는 야호 숲 놀이터
새해 전주시는 전라북도교육청·전주시·세이브더칠드런 학교놀이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아동, 청소년 정책인 야호 프로젝트를 역동적으로 이어나갈 전망이다.
지난해 중산초 '뽕까뽕 놀이터'를 비롯, 5개교의 학교 놀이터를 개장 한데 이어 올해 2개소 조성을 추진 중이다.
또한 아이들이 숲속에서 놀 수 있는 테마가 있는 숲 속 놀이터 '야호 아이숲'이 확대된다. 지난해 완산칠봉 '신기방방 도깨비숲' 등 6개의 아이숲 조성에 이어 올해 4개소가 추가 조성된다.
또한 대한민국 유니세프와 함께 덕진공원에 아동 친화 공간 '맘껏 숲'과 실내복합공간 '맘

껏 하우스'가 조성 중이다.
환경부 '생태놀이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조성된 아중호수 주변 호동골어린이공원과 효자동 효립공원 생태 놀이터에 이어 금암체련공원에 놀이공간이 확충된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인후공원에 숲 체험 교실과 유아숲 교육 등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 중이며, 연간 1만5000여명이 체험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호학교' 학교 넘어 지역연계 강화
청소년 스스로 희망 활동을 기획하는 야호 학교 청소년 자치 프로젝트는 매년 3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매월 운영되는 야호 아카데미, 청소년

자치 프로젝트, 집단토의, 1박2일 캠프, 전주 스마트 투어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다.
올해는 특히 학교자율동아리, 자유학기제, 학기말프로젝트 등 학교와 지역연계 특화 프로그램을 강화해 청소년이 지역을 탐구 및 현안을 제안하고 나아가 전주형 창의교육인 생활학교 도입도 계획 중이다.
△기관별로 다양화된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야호 부모교육
시는 매년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가족 내 문제 예방을 위해 매년 전주형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평생학습센터, 시립도서관 등과 기관별로 차별화된 부모교육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예비부모, 초보부모, 중장년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대상 부모교육을 진행 한다.
또한 전주 시립 도서관에서는 육아를 돕고 부모와 유아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육아지원 프로그램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와 6~48개월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그림책이 든 책 꾸러미를 배부하고 책 놀이 활동도 진행 된다.
올해 특히 다양하고 체계적인 부모교육 추진을 위해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모교육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도 함께 지속할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화려한 패션 메이크업 2019 코리아 헤어 디자인 아트 페어가 22일 전북 완주군 우석대학교에서 실시된 가운데 패션 메이크업 부문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열정을 다해 기량을 뽐내고 있다.

동료 살해 후 소각장에 시신 불태운 환경미화원 원심 유지

2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도살인,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기간의 정함이 없는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불 때 원심의 무기징역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씨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피해자를 채무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살해했고 방법 또한 혐기적이고 잔인하다"며 "유족들은 큰 슬픔을 겪고 배가 됐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모씨는 지난 2017년 4월 4일 오후 7시경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 A모씨(당시 58)를 목 졸라 살해

하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평소 소수거하는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시신을 대형 비닐봉지 15장으로 겹겹이 감싸 일반 쓰레기로 위장하고 쓰레기 차량으로 수거한 뒤 소각장에서 불태웠다.
또한,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A모씨 자녀들에게 정기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하드디스크에 걸린 것처럼 진단서를 첨부해 휴직계를 팩스로 보내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법원은 A모씨 아버지가 지난 2017년 12월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이모씨는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뿐 강도살인은 아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생전 A모씨에게 1억5천여만 원을 빚 범행 직후인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A씨 명의로 저축은행 등에서 5천300만원을 대출받는 등 3억여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며 A모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강석훈 기자

'정규직 도와줄게' 전주지역 청년창업가 지원 나섰다

부하 직원에게 선거운동 강요 공무원 집행유예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간제 공무원에게 현직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우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실군청 공무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입실군청 A과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과장은 지난해 4월 군청 사무실에서 기간제 공무원 B모씨에게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선거 때 군수를 도와줘야 한다. 군수의 재선을 위해 마을 이장들과 젊은 유권자들을 설득하면 정규직 전환을 도와주겠다"며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과장은 B모씨와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된 경우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 같이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모씨는 A과장을 고소했다.
재판부는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탈락한 직원에게 피해자가 평정권자인 피고인의 제안을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했다"며 "이 범행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재직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

전주시-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오렌지팜 센터 구축 협약 체결

전주시가 세계적인 게임제작사인 스마일게이트와 손잡고 전주지역 청년창업가 지원에 나선다.
시와 (재)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22일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양동기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대표, 서상봉 (재)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이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렌지팜 전주센터' 구축·운영 및 청년창업가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렌지팜 전주센터는 세계적인 게임제작사 스마일게이트가 사회공헌을 위해 유망청년창업가를 육성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지원 센터이다.
시와 (재)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이날 협약에 따라 청년창업 활성화를 이끌 오렌지팜 전주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전주지역의 우수 청년스타트업과 예비창업자 발굴에 힘쓰기로 했다.
또, 발굴된 청년스타트업과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역 창업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생태계 마련에도 힘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시는 오렌지팜 전주센터 구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장소 등 관련 인프라를 지원하고, △타 유관기관과의 창업지원사업 연계 △지역 내 멘토 풀 구축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 등에 힘쓰기로 했다.
(재)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창업지원프로그램 지원·운영 △산업별 전문가 멘토링 및 선배 창업



전주시와 (재)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22일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양동기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대표, 서상봉 (재)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이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렌지팜 전주센터' 구축·운영 및 청년창업가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가와의 네트워킹 지원 등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시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재)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와 민간 창업지원사업 도입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오렌지팜 전주센터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시는 향후 오렌지팜 전주센터가 구축되면 우수 청년스타트업과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하고 청년창업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창업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열쇠는 청년창업 육성과 중소기업의 성장에 달려 있다"며, "지역 기업을 키우고,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기회를 살리고 키워내기 위한 오늘 협약이 전주시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출신인 권혁민 의장이 이끄는 스마일게이트는 지난 2002년 설립,

온라인게임인 크로스파이어를 중심으로 내실 있는 성장을 이뤄내면서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연 매출액 6200억원을 달성한 기업이다.
현재, 스마일게이트는 총 9개 계열사를 중심으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도박 있어서' 빈집털이 입건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고창경찰서는 22일 절도 등 혐의로 A모씨(47)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A모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 17분경 고창군 B면 한 자택에 침입해 현금 200만원과 상품권 7만원 등 26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A모씨는 동종전과 4명의 전력이 있다고 확인됐다.
A모씨는 경찰조사에서 "도박이 있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강석훈 기자